



상호의사가 존중되는 곳에

M. 가정 탐방

신학자를 남편으로 둔 '박' 사람과 정치가를 아내로 둔 '안' 사람

박영숙 부총재와 안병무 박사 부부

국내의 여성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당직을 맡고 있는
평민당의 박영숙 부총재와 이 땅에 민중신학에
입각한 복음을 퍼며 험난한 구도자적 길을 걸어온 안병무 박사 부부.
'안' 사람인 안박사로부터 항상 비판적 협조를 받고 있고,
'박' 사람인 박부총재로부터는 정신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노부부의 살아가는 모습은 상호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본래의
의미를 생각하게 해준다

민주주의의 꽃은 피어난다

●글 유인종 기자 ●사진 문재성 기자

노부부의 친구 같은 사랑

국내의 여성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당적을 맡고 있는 평민당의 박영숙(56세) 부총재와 이 땅에 민중신학에 입각한 복음을 펴며 험난한 구도자적 길을 걸어온 안병무(66세)박사 부부.

두 사람이 13년 전부터 살고 있는 서울 수유리의 아담한 집을 들어서면 거실에 꽂혀 있는 많은 책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인상적인 사진이 있다. 꽤나 오래 되었음직한 사진 속에서 안병무 박사는 수의(囚衣)를 입고 미소를 띠며 채 외아들 재권군

희로 갔다.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같이 구속되었다가 같은 날 석방된 이해동 목사가 목회일을 보고 있던 한빛교회에서 출옥 환영 및 결혼 기념 예배를 보며 찍었던 사진.

1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안박사는 한국신학대학에서 정년 퇴임한 뒤 대학원 수업을 조금씩 맡아 강의하는 백발이 성성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고, 아내는 제도권 밖의 인권·여성운동가에서 제1야당의 부총재로 변신하였다.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은 어느덧 대학생으로 장성하여 거실 뒷편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기타를 통기며 잔잔하면서도 애

뛰어들었던 박영숙 부총재는 최근 들어 부쩍 아내와 엄마로서의 도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운 표정을 짓는다.

보람있게 보낸 제도권의 일년

YWCA와 여련(여성단체연합) 등 주로 제도권 밖에서 활동해 온 박부총재가 정치에 뛰어든 것은 지난해인 87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눈 앞에 두고 있던 평민당의 재야인사영입 케이스였다.

당시 평민당은 부총재 1명, 당무위원 2명, 특별보좌관 2명, 지도위

생각이었어. 제도권에 직접 뛰어들어 정치풍토를 쇄신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안(제도권)에서 밖(재야)과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중요성이 동시에 작용하여 이 친구가 정치에 뛰어들도록 적극적으로 밀게 되었지.”

부부가 아니라 그 이상 가는 관계일지라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갈 길을 가야 한다고 믿는다는 안박사는 험상궂게 여길 수도 있는 정치판에 아내를 떠민 동기를 이와 같이 들려준다.

고희(古稀)와 이순(耳順)을 바라보는 노부부의 살아가는 모습은



정치에 입문할 때 이 친구가 무척 주저하더군요. 아들과 함께 냉정하게 검토한 뒤 나가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했지. 체제 밖의 인권운동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었어. 그러나, 이 친구가 개인적 욕심을 부린다면 당장 정치를 그만두게 하거나 이혼도 불사할 거야



(현재 서울대 수학과2년)과 아내와 함께 나란히 앉아 있다. 10여년 전에 찍은 그 사진이 이 가정의 역사를 웅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유신정치의 폭거가 몰아치던 지난 76년, 안병무 박사를 비롯한 재야인사들은 3·1절을 맞아 민주회복선언을 한다. 이것이 바로 '명동사건'으로 불리기도 하는 '구국민주선언사건'. 안박사는 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해 12월 29일 출감하였는데 그날이 마침 부부의 결혼 9주년 기념일이었다. 죄수복 차림인 채로 안박사는 아내와 아들과 함께 미아리에 있는 한빛교

절한 맛이 있는 민중가요를 부르고 있었다.

“YWCA 일을 할 때까지만 해도 나는 중산층의 안일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에게 별 일이 없으면 세상에도 별 일이 없다는 식이었죠. 그러다가 결혼을 계기로 매사에 분명한 '아빠'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철이 들었다고 할 수 있겠죠. 또 76년 명동사건으로 당시 함께 구속되었던 구속자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남을 위해 사는 삶, 다른 삶과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웠어요. 아빠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스승입니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정치판에

원 2명 등 모두 7명을 추천해 달라고 여련에 의뢰했었다. 당시 발족한 지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여련으로서 7명이나 나가면 자체 활동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 같아 부총재 한 명만을 내보내기로 결정했고, 나이와 경력 등을 감안하여 당시 수석 부총무를 맡고 있던 박부총재가 정당활동을 전혀 원치 않던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차출당했던 것.

“그때 이 친구가 무척 주저하더군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냉정하게 검토한 뒤 나가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했지. 당시 내 판단으로는 체제 밖의 인권운동에는 한계가 있다는

신혼부부의 그것처럼 정겹고 아기자기하다. 토론 훈련이 잘 된 탓인지 서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며 티격태격하기도 하지만, 박부총재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는 허물없는 스승과 정담을 나누는 것처럼 깎듯하다. 그렇다고 해서 안박사가 굳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고.....

부부는 결혼이 늦었다. 안박사가 45세, 박부총재가 35세일 때 결혼식을 올렸다.

안박사는 이념적으로 독신주의자였다. 22년 평안남도 신안주 출생인 안박사는 두 살 때 부모님을 따라 민족운동의 요람인 간도로 이주

하여 그곳에서 소년기를 보내면서 민족의식을 키웠다. 일찌기 키에르케고르에 심취한 그는 해방 이듬해에 월남,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수학했다. 비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으나 기독교를 추구하게 된 그는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신학박사는 됐지만 목사도 안 되고, 주례도 안 서던 그는 예수적 삶을 표상으로 삼아 소유를 부정하고, 결혼을 거부하는 삶을 택한다.

그러던 그가 지금의 아내를 만난 것은 65년, 귀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32년, 평양에서 3남

김재준 목사의 주례로 식을 올린 부부는 예나 지금이나 철저한 자유주의자로 살아가고 있다.

국회의원 활동 계속 여부는 미지수

남편과 아들의 '비판적 지지'를 받고 정계에 진출한 박부총재가 보낸 의정 1년은 민족스러운 편이라고 한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고, 많은 것을 시정했다고 자부한다'는 것.

현재 박부총재는 '어둠의 자식들'의 작가 이철용 의원 등과 함께 보사위에 소속돼 있다. 처음 상임위를

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를 다루는 곳이거든요. 재야 활동을 하면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일부 문제들을 제도권에서 개선해나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박부총재가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일은 가족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 AIDS관련 법안과 원폭피해자처리문제에 관한 법안의 상정 및 제정 그리고 매춘 문제의 개선을 위한 특수직 종사자 선도대책 등에 관한 법률의 연구 및 제정이다. 매춘과 매춘여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며 연구 중이고 가족법 개정안은

문에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겠다고 봐요."

복스럽고 화평한 얼굴, 술수와 책략 그리고 거짓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박부총재에게 성급하지만 4년 뒤의 활동 여부를 물었다.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면서)글쎄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그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내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으니가 참이주겠거니 생각하고는 있지만, 내조를 전혀 못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때 곁에 있던 인박사가 '무능하면 도태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여성단체 일을 할 때까지만 해도 나는 중산층의 단일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에게 별 일이 없으면 세상에도 별 일이 없다는 식이었죠. 그러다가 결혼을 계기로 매사에 분명한 아빠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아빠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스승입니다

3녀의 둘째로 출생한 박부총재는 47년 어머니를 따라 월남한 뒤 광주 전남여고와 이대 영문과를 마친 뒤 그때는 YWCA의 맹렬 총무로 활동하고 있었다. 세미나와 강연 등의 일로 잊혀질 만하면 만나던 67년의 어느 여름날, 인박사는 한강 백사장에서 박부총재에게 멋있는 청혼을 한다.

'외병 중인 어머니와 어떨결에 올해 안에 결혼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머니 소원을 들어드리겠다고 했으니 이제는 내 독신주의를 깨뜨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애긴데 우리 결혼합시다.'

그해 12월 19일, YWCA에서

배정할 때는 재야에서 입당했다는 부담감 때문에 충격요법을 가하려고 내무위 배정을 원했으나 내무위라는 곳이 원체 인기가 있어서 당직자도 함부로 못 가는 곳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신이 한몫을 할 것 같지도 않아서 배정해주는 대로 외무위로 지정되었다가 다시 보사위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보사위로 오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동안 축적한 운동의 경험과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 면에서 볼 때 나의 보사위 활동은 적격이라는 생각이예요. 활동이 매스컴 등을 통해 두드러지지는 않는 분야이지만 환경, 여성, 건강 등 바

동과를 위해 마후에서 몇가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오랫동안 인권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온 재야운동가답게 박부총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문제는 장기수감돼 있는 정치범들에 관한 일이다. 대부분 간첩죄로 복역중인 이들 가운데는 30년 이상 수감상태인 사람들도 있으며, 70세 혹은 80세가 넘는 사람들도 있어서 걱정이 많다고 많다.

"나로서는 금년이 비교적 만족스러워요. 김영진, 이해찬, 노무현, 이상수, 박석무, 이철용 의원 등 재야에서 뛰어난 다른 초선의원들도 원래 자신의 전문분야가 있었기 때

해야 하는 것이 정치의 메카니즘'이라며 '본인의 희망사항과는 다를 것'이라는 말을 한다.

"나로서는 이 친구가 개인적 욕심을 부린다면 정치를 못 하게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할 테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황은 또 작년 입당 권유할 때와 마찬가지로 되겠지."

인사람인 인박사로부터 항상 비판적 협조를 받고 있고, 박사람인 박부총재로부터는 정신적 지원을 받고 있는 노부부의 살아가는 모습은 상호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본래적 의미를 생각해 해준다. m